

지역 소식 통

정읍시, 2025년 새롭게
122개 주요 정책 선보여

정읍시가 2025년을 맞아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122개 주요 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시는 올해부터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정책 7개 분야 122개 사업(신규 39건, 확대 83건)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도시 발전에 나선다. 이 정책들은 △경제·산업(10건) △농업·축산(31건) △문화·체육(2건) △복지·건강·안전(51건) △환경·산림(9건) △주거·청년(11건) △행정·시민생활(8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정책 중 하나는 경제·산업 분야의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다. 총 8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서는 출생축하금 지원 요건 완화와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신설로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들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희망자 모집

부안군은 2025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희망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과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빈집 소재지 읍·면에서 오는 2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붕 구조에 따라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일반지붕은 300만원, 슬레이트지붕은 400만원이다.

주거용 33동, 비주거용 5동 지원 계획이며 부안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내장산국립공원, 한국 대표 명소 입증

6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 선정... 단풍 넘어 사계절 자연·역사 아우르는 매력 가득

국내 대표 관광지 내장산국립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6회 연속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꼭 방문해야 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곳을 2년마다 선정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7회째다. 내장산은 단풍 명소로서 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자연과 역사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관광지로서 평가받았다.

시는 내장산국립공원의 6년 연속 관광100선 선정은 적극적인 관광지 개발과 홍보 활동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간 내장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며 관광객 유치에 힘써왔다. 지난해는 내장산 특화 먹거리 개발 일환으로 스타셰프 이원일과 협업해 돼지고기와 콩, 버섯 등 정읍의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버섯돈육칼'과 '등뼈버섯곰탕'을 출시했다.

또 가을 단풍에 한정된 이미지 탈피와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내장산 브랜딩을 위해 트레킹 전문여행사와 손잡고 '내장산 히든로드'라는 상품을 개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사업도 계속되고 있다. 내장산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의 일환으로 내장

호 인근 문화광장을 복합체험 관광거점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문화광장 순환열차를 운영한 데 이어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기적의 놀이터 조성 등 가족 친화형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번 선정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는 설 연휴를 맞아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대국민 방문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설프라이즈 인증샷 이벤트'와 스페셜 여행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추천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변산반도, 한국관광 100선 선정

산 · 바다가 어우러진 생태 관광지 · 사계절 관광명소

부안군은 변산반도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한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2년 단위로 발표한다.

이번 선정은 변산반도가 지난 전체



의 자연환경과 군의 지속적인 자연환경 보전 및 관광 활성에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변산반도는 한국관광 100선에 총 3번 선정됐다.

변산반도는 향후 2년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소개되며 국내·외 관광객 안내소에 배포되는 한국관광 100선 지도에도 이름을 올린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지정된 변산반도는 국립공원 중 유일하게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공원으로 아름다운 해안선과 기암괴석, 울창한 숲, 다양한 문화유적이 어우러진 부안의 대표 생태 관광지로 손꼽히며 사계절 내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변산반도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것은 부안군민 모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설 연휴 민생안정 종합대책 가동... 시민 안전 최우선

정읍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재난·재해, 의료·방역, 물가·교통, 생활환경, 상하수도 등 7개 분야의 종합상황반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발생 가능한 민원 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재난·재해와 관련해 전기·가스·화재 및 가축전염병 등의 사고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재난·재해 대책반과 가축전염병상황실을 운영해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또한 시 보건소는 설 연휴 기간(1월 25일~2월 2일) 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의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정읍아산병원을 포함한 의

료기관 119곳과 약국 54곳 등 총 182개소가 참여하며, 정읍아산병원은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다. 보건소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안내하고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군청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과 '명사십리 관광발전 및 전력사업 협력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명사십리 관광발전 · 전력사업 협약식'

고창군 ·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심덕섭 고창군수 등 10여명 참석

고창군이 한국전력 전력연구원과 명사십리 관광 발전사업과 전력기술 홍보협력에 손을 맞잡았다. 특히 명사십리길(8.5km) 초입의 핵심부지 활용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본격적인 해양테마 관광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군청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과 '명사십리 관광발전 및 전력사업 협력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심은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고창전력시험센터의 교육·홍보 협력사업 발굴, 고창전력시험센터 주변 생태복원, 생태자원화 사업추진 등 5개 협력 분야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전력 전력사업연구원 고창전력 시험센터'는 고창군 상하면 명사십리 일원에 자리 잡고 있다. 1989년 실증 시험선로 구축을 시작으로 설립과 현재는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센터는 고창군이 추진하는 '명사십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협력하고, 향후에는 명사십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한전의 최첨단 전력기술 홍보와 전기안전문화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고창군은 명사십리길 시작지점에 위치한 고창전력시험센터의 협력으로, 명품 관광지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주차장, 화장실, 진입로 등)에 착수하고, 민간기업의 추가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세계유산 보존 · 관리 국가예산 확대요청"

심덕섭 고창군수,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면담 · 현안사항 건의

심덕섭 고창군수(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가 22일 오후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과 면담하고 세계유산 보존·관리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심덕섭 군수는 최응천 청장과 면담을 통해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가예산 확대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지원 △세계유산 도시협의회와 국가유산청간의 상호 교류 활성화 등 세계유산도시협의회 현안을 건의했다.

최응천 청장은 "세계유산도시협의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며 "고창군을 비롯해 한국의 세계유산 도시가 간직하고 있는 경이롭고 신비한 세계유산

의 보존과 활용에 적극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계유산도시 협의회는 세계유산도시 상호간 우호교류 및 공동 사무연구를 위해 지난 2010년 고창군, 안동시 등 세계유산 보유도시를 구성원으로 설립된 단체다. 현재 31개 기초지자체가 회원도시로 활동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21일 제29차 정기회의에서 회장도시로 선출됐다. 고창군은 올해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보존관리 사업, 세계유산 축제사업에 총 52여여원을 투자하여 체계적인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